발 간 사

2004년 본인이 회장을 맡고 새 집행부가 구성된 후, 두 번째로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2004년에도 다사다난한 환경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화에 대처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또 최근에는 남서아시아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여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재앙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지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환경과 관련 있는 커다란 사건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자연보전과 환경파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005년 새해에는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유지, 관리되도록 환경법이 기능하여야 하겠다.

이번 호에는 김춘환, 김형성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정경운 출판이사님 등 여러 환경법학회 회원들이 옥고를 투고해 주셨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번호의 발간을 위하여 학기말의 바쁜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경운 출판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박 수 혁